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XL

가제 : X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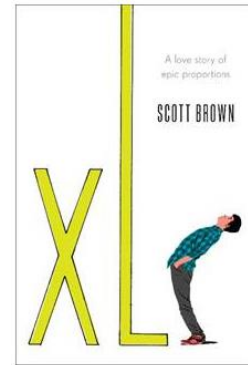
저자 : Scott Brown

출판사: Knopf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9년 3월 26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애플(Apple)사와 TV 옵션 계약 /2019 겨울/봄 시즌 Indies Introduce List에 포함된 데뷔작
- * “우정과 수용, 성장에 관한 재미 있고 유쾌한 성장기. 어린 독자들은 물론 어른들도 매력을 느낄 만한 이야기다” – 소설가 질리언 플린(Gillian Flynn)

생일날 초를 불면서 눈을 꼭 감고 기도를 해도 가족, 친구 누구도 무슨 소원을 빌었냐고 묻지 않을 때는 다 이유가 있다. 사생활 보호 차원이라기보다, 실현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생일 촛불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다 알 만큼 명확할 때 그렇다. 월이 열여섯 살 생일을 맞아 새엄마, 아빠, 이복 형제이자 베스트프렌드인 드류가 지켜보는 가운데 촛불을 후, 하고 불 때도 그랬다. 고등학교 2학년에 이제 대학 진학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나이지만 월의 키는 125 센티미터에서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트롤’, ‘난쟁이’ 같은 별명을 들어도 반박조차 할 수 없는 하위 1 퍼센트 중에서도 1 퍼센트가 되어버린 월은 몇 년 전부터 몸은 자라지 않는데 나이만 드는 것이 너무 싫었다. 그래서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가족들의 마음은 알지만 제발 모른 척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쑥쑥 키가 자라는 친구들 옆에 서면 반 밖에 안 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과연 끝나거나 할는지, 평생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런 월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드류와 열 살도 되기 전부터 단짝친구였던 모니카가 옆에서 늘 위로하고 격려해주지 않았다면 정말로 미쳐버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월에게 가장 소중한 이 두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영향력을 발휘할 줄 누가 알았을까?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유인원을 관리하는 아버지 덕분에 월은 어릴 때부터 동물원을 제집 드나들듯 드나들었다. 아버지를 따라 우리에 들어가서 가까이서 동물들을 보고, 만지고, 좀 커서는 먹이를 주고 배설물을 치우는 자질구레한 일을 돕기도 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자, 월은 또래 친구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자신을 우습게 여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독 사나운 고릴라가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에게 포악하게 굴고 먹이를 주면 집어 던지면서 난리를

피우다가도 월에게만 말 잘 듣는 강아지처럼 유순하게 손길을 받아들인 것이다. 처음에는 친구감의 표시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싸울 가치도 없는 약한 존재’를 향한 제왕의 배려라는 의미임을 알고 난 후 월은 한층 더 자신의 키를 원망했다. 그 즈음부터 모니카를 향한 마음이 친구 이상의 특별한 감정으로 점점 증폭되어 가면서 그 원망은 깊은 절망이 될 수밖에 없었다. 동물들도 이렇게 무시하는데, 모니카처럼 똑똑하고, 아는 것 많고, 정의롭고, 따뜻한 사람에게 나같이 불품 없고 특별히 잘 하는 것도 없는 놈이 감히 고백을 해도 될까? 월의 고민은 자신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드류를 보면서 더욱 깊어졌다. 학교 농구팀 대표선수이자 가장 유망한 선수로 꼽히는 드류는 이미 입학하고 싶은 대학까지 정해놓았다. 흰칠한 키와 자상한 성격 덕분에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다. 월은 이런 두 사람이 누구보다 자신을 아끼고 챙겨준다는 사실이 축복처럼 느껴지다가도 때로는 너무 비교가 된다는 현실이 아프게 다가올 때도 있었다. 그래도 못나게 굴지 말자고 늘 다짐하며 씩씩하게 지냈는데, 열여섯 살 생일이 지난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마침내 용기를 끌어 모아 모니카에게 고백을 하려고 한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얼마 후 모니카가 드류와 키스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만 것이다.

기겁한 월은 충격에 휩싸이지만, 그런 감정에 빠져 있지도 못할 만큼 놀라운 일이 시작됐다. 갑자기 키가 자라기 시작한 것이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물을 주면 갑자기 키가 쭉 자라는 나무처럼 월의 키는 매일, 급속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125 센티미터였던 키는 어느새 170 센티미터를 훌쩍 뛰어 넘고, 단시간 내에 180 센티미터도 돌파했다. 기겁한 부모님들이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그저 성장일 뿐, 골 밀도도 정상이며 ‘병’이 아니라는 의사의 소견이 더 놀라울 정도였다. 태어나 처음으로 키에 자신감을 갖게 된 월은 자신은 똑같은데 키 하나로 주변 시선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체감한다. 월의 존재조차 모르던 여학생들이 다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중에 적극적으로 다가온 여학생과 ‘숙원 사업’이던 첫키스도 했다! 드류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후 서먹했던 모니카와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드류와 연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연한 기회에 모니카에게 다시 마음을 고백한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모니카도 같은 마음임을 표현하면서, 세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꼬이기 시작한다. 문제는 월의 성장이 멈출 기미라곤 전혀 없이 계속 이어져 2미터를 넘어서고 ‘거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랑도, 우정도, 키도 대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월은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겉모습이나 외부 환경이 아무리 심하게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한다. 독특한 소재를 십대들의 공통적인 고민과 결부시켜 재미 있게 풀어낸 이야기다.

<저자 소개>

스캇 브라운(Scott Brown)은 논픽션 작가이자 각본가, 기자, 예술 비평가로 활발히 활동해 왔다. 「EW」, 「New York」, 「Wired」, 「GQ」, 「Time magazine」s 등에 글을 기고해 왔으며 조지 진 네이션 연극비평상을 수상했다. 드라마 <Manhattan>의 각본, 뮤지컬 <Gutenberg! The Musical!>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길리언 플린의 원작으로 탄생한 HBO 드라마 <Sharp Objects>의 연출을 맡았다.

제목 : THE FIRE MAKER
가제 : 불의 마법사 알렉스
저자 : Guy Jones
출판사: Chicken House
발행일: 2019년 4월 4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 터키, 미국 판매 완료
- * 마법 세계와 현실이 잘 어우러진 모험 이야기

학교 생활도 순탄치 않고 집에서도 마음 기댈 곳이 없는 열두 살 알렉스에게는 세계 최고의 마술사가 되겠다는 꿈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다. 한 때는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알렉스를 못살게 구는 프레디와 프레디를 따르는 못된 아이들의 집요한 괴롭힘을 피해서, 그리고 엄마가 집을 떠난 후 알렉스보다 일에만 푹 빠져 사는 아빠의 무관심이 주는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알렉스는 늘 조용히 마술 연습에 몰두하곤 했다. 목표는 매년 런던에서 개최되는 ‘올해의 어린 마술사’ 대회에 참가해서 대상을 받는 것.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은 덕분에 알렉스는 지역 대표 자격을 거머쥔다. 결승에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도 말할 것 없이 기뻐지만, 심사위원이 짝 켈러였다는 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춤을 추고 싶은 심정이었다. 알렉스가 처음 마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인물, 마술사들 사이에서 전설로 통하는 짝 켈러가 보는 앞에서 마술을 선보이다니! 우울하고 절망적인 일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알렉스는 꿈에 성큼 가까이 다가간 기분을 느끼며 더욱 더 연습에 매진한다. 그러던 어느 마지막 저녁, 방과 후 집으로 향하던 알렉스는 프레디 일당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눈에 띄면 또 못살게 굴 것 같아 얼른 몸을 숨긴다. 정신 없이 숨어들어간 곳은 어느 집 뒷마당. 그런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지나가기를 숨죽여 기다리던 알렉스의 눈 앞에 이상한 물체가 나타난다. 더 정확히는 공처럼 동그란 불 덩어리였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그 불덩이는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알렉스를 향해 다가왔다. 기겁한 알렉스가 얼빠진 상태로 보고 있을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불덩이가 ‘말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도 아니고 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불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느껴졌다. 소스라치게 놀란 알렉스는 벌떡 일어나 재빨리 달아난다. 귀신이라도 본 기분이었다.

나중이야 그곳이 동네에서 괴짜로 알려진 올모스 씨라는 한 노인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알렉스는 헛것을 봤다고 생각하며 잊으려고 하지만, 사람처럼 행동하던 불덩이의 생생한 모습은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다. 결국 고민 끝에 올모스 씨의 집에 찾아간 알렉스는 다시 그 불덩이를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뒷마당에 숨어 있다가 그만 집주인에게 들켜고 만다. 알렉스가 왜 그곳에 그러고 있는지 털어놓자, 난감해하던 올모스 씨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준다. 알렉스가 본 동그란 불덩이는 불의 형체를 한 영혼이라는 것이다. 진이라 불리는 이 영혼들은 사람처럼 어리고 미숙한

시기를 지나 성숙한 어른의 단계에 이르며, 그 때가 되면 하늘로 승천한다는 것이 올모스 씨의 설명이었다. 그가 하는 일은 어린 진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이라 뒷마당 헛간에서 남들 몰래 그 일을 해왔다는 것이다. 진에게는 마법사라면 누구나 탐낼 법한 신기한 힘이 숨겨져 있고 수백 년 전, 그 사실을 알아낸 사악한 마법사가 진을 노예처럼 가둬두고 특별한 힘을 모조리 빼앗으려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도 들려 주었다. 굳이 숨어서 진을 돌보는 이유도 또 다시 그런 존재가 나타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올모스 씨와 한층 가까워진 알렉스는 그가 돌보는 어린 진들과도 친해진다. 그런데 마술사 대회에서 선보일 마법을 연습하던 알렉스는 자신에게 진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실제로 진은 마술사의 지시나 암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마술에 힘을 불어 넣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올모스 씨는 진을 함부로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따끔하게 경고하지만, 알렉스는 자신의 놀라운 기술을 더 갈고 닦고, 자랑하고 싶어진다. 결국 잔소리하는 올모스 씨의 감시를 피해 다른 곳으로 어린 진을 데려가 연습하던 알렉스는 수상한 낚새를 감지하고 뒤따라온 프레디에게 불덩이로 마술을 벌이는 광경을 들키고 만다. 게다가 결승을 앞두고 잭 켈러와 단 둘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날, 알렉스는 롤 모델이자 최고의 영웅인 그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진의 존재를 드러내고 만다. 유능한 마술사인 잭 켈러는 그저 새로운 볼 마술 중 하나로 알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알렉스의 착각이었다. 잭은 올모스 씨 못지 않게 진의 존재와 능력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가 바로 올모스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 수백 년 전 진을 가둬두고 모든 능력을 빼앗으려 했던 사악한 마술사였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욕심과 실수로 올모스 씨가 고이 보살펴온 진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알렉스는 수습해보려고 하지만 사태는 점점 악화된다. 어린 진들을 새로운 장소로 옮기려던 계획을 눈치 챈 잭 켈러의 부하들이 들이닥쳐 한바탕 소란이 일고, 알렉스가 진을 끌어 모아 겨우 숨긴 사이 올모스 씨를 잡아간 것이다. 마침 그 현장을 목격한 프레디가 달려들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진까지 다 빼앗길 뻔한 상황이었다. 사태를 파악한 프레디는 그 동안 못살게 굴던 태도를 버리고 도와주겠다며 알렉스에게 손을 내민다. 오래 전처럼 다시 끈끈한 친구가 된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악당들 손에 납치된 올모스 씨를 구할 계획을 세운다. 어린 진들과 맞교환하자는 잭의 거래를 받아들이는 척하고 교환 당일에 진은 빼돌리고 올모스 씨만 구한다는 두 사람의 계획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마침내 잭의 일당과 만난 날, 알렉스와 프레디는 올모스 씨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마술의 힘으로 어린 진을 조종하기 시작한 잭의 강력한 능력에 맞서 아마추어 마술사인 알렉스는 과연 모두를 무사히 구할 수 있을까? 기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야망과 신뢰, 우정을 결코 가볍지 않게 다룬 흥미로운 소설이다.

<저자 소개>

가이 존스(Guy Jones)는 보츠와나에서 태어나 영국 베드퍼드셔에서 자랐다. 10여 년간 웨스트엔드 뮤지컬 <Never Forget> 등 극본가로 활동하다가 소설을 쓰기 시작하여 데뷔작 『The Ice Garden』을 발표했다.